

초등 전 사교육 경험이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효과*

윤 소 정¹⁾

서울법원어린이집

김 진 옥²⁾

명지대학교 아동학과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한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를 활용하여 초등 학교 1학년 아동의 초등 전 사교육 실태를 살펴보고, 초등 전 사교육(국, 영, 수) 경험(경험 유무, 시작연령, 교육방식, 과목수, 주당교육시간)에 따라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의 학교적응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2010년 제1차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에 표집된 초등학교 1학년 아동 2,342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분석을 위해 교차분석, t 검정, 일원배치분산분석, 공변량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초등 전 사교육 경험 중 오직 주당교육시간에 따른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의 학교적응에서만 차이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학교적응 하위요인을 살펴보면 학업성취와 관련이 없는 학교규칙, 교우관계, 교사관계에서는 차이가 나타난 반면 학습활동 영역에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결과는 초등 전 사교육은 유아의 학교적응에 매우 제한적인 도움만을 줄 수 있음을 암시하며, 사교육 경험이 학습활동의 긍정적 성과로써 연결되고 학교적응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부모의 신념과 기대를 수정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주요어 : 초등 전 사교육 경험, 사교육 실태, 초등 1학년 아동, 학교 적응

* 본 논문은 2016년 한국인간발달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포스터 발표한 것을 확장한 것임.

1) 제1저자 : 서울법원어린이집, 교사

2) 교신저자 : 명지대학교 아동학과, 조교수 (E-mail: jwkddorang2@mju.ac.kr)

I. 서 론

우리나라에서 사교육이 허용되기 시작한 1980년대 말 이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사교육 열풍은 식지 않고 있으며, 부모의 자녀 학업에 대한 과도한 기대 및 불안감은 사교육 의존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한국교육개발원, 2003). 이러한 사교육 열풍은 취학 전 아동도 예외는 아니며, 한국교육개발원(2010)에 따르면 유아 사교육 실시 가구는 전체의 99.8%로 거의 모든 가구가 사교육을 이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나라에서 사교육은 이미 취학 전 아동에게까지 만연하게 퍼져있는 상황인 것이다(우남희, 백혜정, 김현신, 2005).

취학 전 자녀에게 사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조금이라도 일찍 사교육을 시작하는 것이 미래학습에 더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는 믿음에 기저에 깔려있기 때문이며(김주후, 김경란, 유윤영, 2011), 유아기에 겪는 다양한 경험들이 훗날 대학입시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부모의 인식이 뒷받침된 것이라 할 수 있다(이명순, 2007). 또한 이와 같은 사교육에 대한 부모의 신념은 사교육 이용 목적과도 연결되는데, 실제로 자녀에게 사교육을 실시하는 가장 큰 이유로 자녀에게 학습적 도움을 주기 위함이나 초등학교 준비를 위해서라는 이유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김보림, 엄정애, 2007; 우남희, 현은자, 이종희, 1993; 한국교육개발원, 2010). 즉, 자녀에게 제공하는 취학 전 사교육은 초등학교에서 보다 성공적인 적응과 성취를 위해 행해지는 것이라 볼 수 있다(김주후 등, 2011).

학교적응은 아동의 학교에 대한 만족감은

물론 대인관계, 성적 향상과도 연결되는 중요한 요인으로(김수정, 곽금주, 2010), 초등학생이 교사, 학생, 교우, 학습활동, 규칙준수 등에서 자기욕구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지각하는 상태(정화실, 2009)로 정의된다. 초등학교에 입학한 아동은 유아교육기관에서 처음으로 초등교육기관으로 전이를 경험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또래 및 교사 관계, 교육과정, 기관 내 규칙 차이 등을 겪게 된다(고정곤, 최태식, 2003). 무엇보다 입학 초 성공적인 학교적응은 이후 아동의 원만한 학교생활을 좌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교적응은 부모들의 큰 관심사인 동시에 걱정의 대상이 되고 있다(신호정, 서영숙, 2007; 정우정, 2006). 초등학교는 유아기에 경험하는 교육환경과 달리 본격적인 학습이 시작되는 시기라는 점을 미루어봤을 때, 자녀의 학업적 적응에 대한 부모의 염려가 그 어느 때보다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부모의 염려는 취학 전 자녀의 초등학교 준비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김창복, 이신영, 2013), 부모로서 자녀에게 많은 교육적 투자를 지원하게 만든다(임성택, 어성민, 2013; 정우정, 2006). 결국 부모들은 자녀의 성공적인 학교적응을 위해 사교육에 더욱 의존하게 되는 것이다(김재명, 2015).

이처럼 부모들은 사교육 경험이 학교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김순기, 2006). 사교육의 효과를 살펴본 선행연구를 보면, 박찬옥(2002)은 유아기 사교육 경험이 있는 아동이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 학업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하였고, 나인영과 이영(2011)의 연구에서

는 취학 전 학원 교육기관을 경험한 아동들이 학업성취 점수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또 다른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사교육 경험이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왔다고 지적하였는데, 우남희 등(2005)의 연구에서는 조기 사교육 경험이 있는 아동의 경우 주의가 산만하고,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고 하였으며, 진영자와 김진선(2010)의 연구에서는 사교육 경험이 없는 아동이 사교육 경험이 있는 아동보다 학습태도가 긍정적으로 높게 나타났다고 하였다. 또한 권혜진(2015)의 연구에서는 취학 전 사교육 경험이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였다. 여러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사교육 경험은 학교적응 및 학습관련 영역에서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양립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사교육 경험의 효과에 대한 일관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구체적인 초등 전 사교육 경험에 따른 변인의 효과를 살펴보았다기보다 취학 전 교육기관 유형 또는 단순 사교육 경험유무, 초등학교 입학 후의 사교육 경험을 바탕으로 변인들을 살펴본 것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사교육 경험유무 이외의 구체적인 초등 전 사교육 경험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학교적응은 어떠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한편, 사교육과 관련된 많은 연구들(김보림, 엄정애, 2007; 도현심, 박보경, 김수진, 조숙인, 2009; 민미희, 2015; 안지영, 2003; 우남희, 김영심, 이은정, 김현신, 2010; 이기숙, 장영희, 정미라, 홍용희, 2002; 황혜신, 2003)은 사교육 실태 및 사교육에 대한 부모의 인식에 초점을 두거나, 사교육 비용과 관련된 연구(김지경,

2004; 서문희, 양미선, 2013; 이경선, 김주후, 2010; 이광현, 권용재, 2015)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사교육 선행연구들에서는 사교육과 관련하여 꾸준히 언급되는 요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성별, 부모의 소득수준, 부모의 학력을 들 수 있다. 성별의 경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여아보다 남아에게 더욱 높은 학업적인 성취와 학력을 기대하는 경향이 있다고 했으나, 최근에는 자녀의 성별에 관계없이 자녀에게 기대하는 학업적 성취가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양미선, 권정임, 양연숙, 2010).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성별에 따른 사교육 경험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부모의 소득수준의 경우 선행연구들(민미희, 2015; 서문희, 양미선, 2013; 성낙일, 홍성우, 2008; 이경선, 김주후, 2010)에서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사교육 비용 또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부모의 소득수준과 사교육비 지출이 관련 있다는 점을 미루어봤을 때, 구체적으로 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른 사교육 경험에서도 차이가 나타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부모의 최종학력 또한 선행연구들(이경선, 김주후, 2010; 이영, 2004)을 살펴보면 사교육 참여와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자녀의 교육적 지원 및 자녀 양육에 있어 주를 이루고 있는 어머니의 영향력이 매우 크고(김소윤, 최성우, 2015), 자녀의 교육열은 어머니 자신들의 교육적인 경험과 많은 연관이 있다는 점(이민경, 2007)을 미루어 봤을 때 모의 최종학력이 사교육 경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모의 최종학력에 따른 사교육 경험에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지금까지 선행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사교육 경험에 따른 학교적응에 대한 부모의 기대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초등 전 사교육 경험 이 학교적응에 어떠한 효과를 보이는지에 대한 연구는 거의 다뤄지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보다 구체적이고 다양한 관점에서 초등 전 사교육 실태를 알아보고 성별, 부모의 소득수준, 모의 최종학력에 따른 사교육 경험에 차이를 살펴보고, 나아가 초등 전 사교육 경험이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의 학교적응에 어떠한 효과를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의 초등 전 사교육 실태는 어떠한가?

1-1.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의 초등 전 사교육 경험 유무는 어떠한가?

1-2.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의 초등 전 사교육 시작연령은 과목별(국, 영, 수)로 어떠한가?

1-3.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의 초등 전 사교육 방식은 과목별(국, 영, 수)로 어떠한가?

1-4.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의 초등 전 사교육(국, 영, 수) 과목수는 어떠한가?

1-5.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의 초등 전 사교육 주당교육시간은 과목별(국, 영, 수)로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성별, 부모의 소득수준, 모의 최종학력에 따라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의 초등 전 사교육 경험(경험유무, 시작연령, 교육방식, 과목수, 주당교육시간)은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초등 전 사교육 경험에 따른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의 학교적응(학습활동, 학교규칙, 교우관계, 교사관계)은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한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를 활용하여 2010년 제1차 조사에 표집된 초등학교 1학년 아동과 그 보호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표본은 2009년 4월 기준 전국 학교통계(교육부)를 표

표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N = 2,342)

변인	사례수 (N)	비율 (%)
유아성별		
남아	1,211	51.7
여아	1,131	48.3
부모의 소득수준		
월 182만원 미만 (저소득층)	341	14.6
월 182~546만원 미만 (중산층)	1,557	66.5
월 546만원 이상 (고소득층)	304	13.0
모름/무응답	140	6.0
모의 최종학력		
중졸이하~고졸	1,050	44.8
전문대 졸	510	21.8
대졸~대학원 졸	704	30.1
모름/무응답	78	3.3

집들로 하여 층화다단계집락표집 방식을 걸쳐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절차를 통해 완료된 초등학교 1학년 아동 2,342명과 그 보호자를 최종연구대상으로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 아동 및 보호자에 대한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2. 측정도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한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의 경우 청소년용 조사표와 보호자용 조사표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청소년에게 직접 질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청소년이 정확하게 응답하기 어려운 문항이나 부모의 직업, 소득 등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한 문항은 보호자 조사표에 반영하였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5a).

학교적응

학교적응을 측정하기 위해 문선모(1977), 이상필(1990)의 척도를 참고하여 민병수(1991)가 제작한 학교생활 적응 척도를 사용하였다(정화실, 2009).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패널 연구진은 이 도구에서 학교행사 관련문항(5문항)을 제외하고 구성한 학교생활 적응척도를 사용하였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5b).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한 학교적응 도구는 학습활동, 학교규칙, 교우관계, 교사관계 총 4개의 요인으로 구성되어있으며, 각 요인당 5문항씩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Likert식 5점 척도로 '매우 그렇다'의 5점에서부터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까지 5단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적응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대상의 학교적응 도구 문항내적 일관성 신뢰도는 .75로 나타났다. 학교적응 측정도구의 하위요인 및 문항번호, 문항수에 대한 구성은 표 2와 같다.

표 2. 학교적응 측정도구 구성

문항출처	하위요인	문항번호	문항수	내용설명
한국아동· 청소년 패널조사	전체		20	
	학습활동	1, 2, 3, 4, 5	5	학교 수업에 대한 흥미, 과제수행의 성실성, 수업 내용 이해, 모르는 것에 대한 질문, 학습 태도
	학교규칙	6, 7, 8, 9, 10	5	역할 수행, 실내 규칙, 공공물건 사용, 차례 지키기, 쓰레기 잘 버리기
	교우관계	11, 12, 13, 14, 15	5	친구와의 어울림, 화해하기, 친구에 대한 배려, 친구방해, 친구들로부터의 신뢰정도
	교사관계	16, 17, 18, 19, 20	5	인사하기, 교사와의 대화, 학교 밖에서의 교사와의 만남, 학생이 느끼는 교사의 친절함, 교사에 대한 선호

3. 자료 분석

수집한 자료는 IBM SPSS 21.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문제에 따른 자료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의 초등 전 사교육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둘째, 성별에 따른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의 초등 전 사교육 경험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 및 독립표본 t 검정을 실시하였다. 부모의 소득수준, 모의 최종학력에 따른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의 초등 전 사교육 경험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 및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집단 간 차이가 있을 경우 집단 간 사례수가 다른 점을 고려하여 Scheffé의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셋째, 초등 전 사교육 경험에 따른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의 학교적응을 알아보기 위해 부모의 소득수준을 공변인으로 통제한 공변량분석(ANCOVA)을 실시하였으며,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을 경우 Bonferroni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1.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의 초등 전 사교육 실태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의 초등 전 사교육 경험 유무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의 초등 전 사교육 경험 유무를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초등학교 1학년 아동 중 초등 전 사교육 경험이 있는 아동은 전체 아동의 71.1%였다. 과목별(국, 영, 수) 사교육 경험유무를 살펴보면, 국어의 경우 58%, 영어의 경우 16.6%, 수학의 경우 44.9%가 사교육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의 초등 전 사교육 과목별(국, 영, 수) 시작연령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의 초등 전 사교육 시작연령은 과목별(국, 영, 수)로 어떠한지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평균 시작연령을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국어의 경우 5세가 16.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6세가 15.9%로 높게 나타났다. 영어의 경우 6세가 6.3%로 가

표 3. 초등 전 사교육 경험 유무

	사교육 전체 명(%)	국어 명(%)	영어 명(%)	수학 명(%)
경험있음	1,666(71.1)	1,366(58.0)	394(16.6)	1,055(44.9)
경험없음	678(28.9)	976(41.7)	1,948(83.2)	1,287(55.0)
전체	2,342(100)	2,342(100)	2,342(100)	2,342(100)

주. 사교육 전체는 국어, 영어, 수학 이외에도 모든 사교육 과목을 포함한 것임.

표 4. 초등 전 사교육 과목별(국, 영, 수) 시작연령

	국어 명(%)	영어 명(%)	수학 명(%)
시작연령			
0세	1(0.0)	0(0)	0(0)
1세	10(0.4)	1(0.0)	0(0)
2세	44(1.9)	6(0.3)	12(0.5)
3세	170(7.3)	20(0.9)	67(2.9)
4세	314(13.4)	40(1.7)	204(8.7)
5세	384(16.4)	131(5.6)	321(13.7)
6세	372(15.9)	148(6.3)	362(15.5)
7세	65(2.8)	44(1.9)	83(3.5)
모름/ 무응답	6(0.3)	4(0.2)	6(0.3)
결측(교육경험없음)	976(41.7)	1,948(83.3)	1,287(55.0)
합계	2,342(100.0)	2,342(100.0)	2,342(100.0)
평균 시작연령(세)	4.76	5.34	5.15

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5세가 5.6%로 높게 나타났다. 수학의 경우 6세가 15.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5세가 13.7%로 높게 나타났다. 초등 전 사교육 시작연령을 과목별(국, 영, 수)로 살펴본 결과 세 과목 모두 5세 또는 6세에서 가장 높은 비율이 나타났으며, 5세와 6세의 비중에는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과목별 평균 사교육 시작연령을 살펴보면 국어의 경우 평균 사교육 시작연령은 4.76세, 영어 5.34세, 수학 5.15세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의 초등 전 과목별(국, 영, 수) 사교육 방식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의 초등 전 사교육 방식은 과목별(국, 영, 수)로 어떠한지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5와 같다.

국어의 경우 학습지(방문교사) 교육방식이 53.2%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학원이 2.6%로 높게 나타났다. 영어의 경우 학습지(방문교사) 교육방식이 9.3%였고 그 다음으로 학원이 3.8%로 높게 나타났다. 수학의 경우도 학습지(방문교사) 교육방식이 39.9%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학원이 2.6%로 높게 나타났다. 초등 전 사교육 방식을 과목별(국, 영, 수)로 살펴본 결과, 세 과목 모두 학습지(방문교사), 학원의 순으로 교육방식을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초등 전 사교육 방식은 다른 교육방식에 비해 학습지(방문교사)에 편중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5. 초등 전 과목별(국, 영, 수) 사교육 방식

	국어 명(%)	영어 명(%)	수학 명(%)
교육방식			
학원	61(2.6)	88(3.8)	61(2.6)
개인과외	12(0.5)	23(1.0)	10(0.4)
그룹과외	8(0.3)	14(0.6)	6(0.3)
학습지(방문교사)	1,245(53.2)	218(9.3)	935(39.9)
인터넷(통신)	13(0.6)	12(0.5)	14(0.6)
복지기관	9(0.4)	11(0.5)	10(0.4)
사설문화센터	1(0.0)	12(0.5)	6(0.3)
기타	7(0.3)	10(0.4)	8(0.3)
교육방식 2개 이상	5(0.1)	3(0.0)	2(0.0)
결측(교육경험없음)	981(41.9)	1,951(83.3)	1,290(55.1)
합계	2,342(100.0)	2,342(100.0)	2,342(100.0)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의 초등 전 사교육(국, 영, 수) 과목수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의 초등 전 사교육 과목수를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평균 과목수를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6과 같다. 초등 전 사교육 과목수는 2개가 33.4%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1개가 17.2%, 3개가 11.8%로 높게 나타났다. 초등 전 사교육 평균 과목수는 1.20개였다.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의 초등 전 사교육 과목별(국, 영, 수) 주당교육시간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의 초등 전 사교육 주

당교육시간은 과목별(국, 영, 수)로 어떠한지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과목별(국, 영, 수) 평균 주당교육시간을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7과 같다.

국어의 경우 초등 전 사교육 주당교육시간을 살펴보면, 1시간 이하가 52.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1시간 초과-2시간 이하가 3.3%로 높게 나타났다. 영어의 경우 1시간 이하가 11.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4시간 초과-5시간 이하가 1.6%로 높게 나타났다. 수학의 경우 1시간 이하가 40.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1시간 초과-2시간 이하가 2.8%로 높게 나

표 6. 초등 전 사교육(국, 영, 수) 과목수

구분	없음 명(%)	1개 명(%)	2개 명(%)	3개 명(%)	합계 명(%)	평균 과목수
수강 과목수	881(37.6)	402(17.2)	783(33.4)	276(11.8)	2,342(100.0)	1.20

표 7. 초등 전 사교육 과목별(국, 영, 수) 주당교육시간

	국어 명(%)	영어 명(%)	수학 명(%)
주당교육시간			
1시간 이하	1,235(52.6)	282(11.8)	946(40.4)
1시간 초과-2시간 이하	76(3.3)	33(1.4)	63(2.8)
2시간 초과-5시간 초과	48(1.8)	74(3.2)	43(1.6)
모름/ 무응답	7(0.3)	5(0.2)	3(0.1)
결측(교육경험없음)	976(41.7)	1,948(83.2)	1,287(55.0)
합계	2,342(100.0)	2,342(100.0)	2,342(100.0)
평균 주당교육시간(분)	22.87	13.78	18.18

타났다. 과목별(국, 영, 수) 평균 주당교육시간을 살펴보면, 국어의 경우 평균 주당교육시간이 22.87분, 영어의 경우 13.78분, 수학의 경우 18.18분으로 나타났다.

2. 성별, 부모의 소득수준, 모의 최종학력에 따른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의 초등 전 사교육 경험(경험유무, 시작연령, 교육방식, 과목수, 주당교육시간)의 차이

성별에 따른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의 초등 전 사교육 경험(경험유무, 시작연령, 교육방식, 과목수, 주당교육시간)의 차이

성별에 따른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의 초등 전 사교육 경험(경험유무, 시작연령, 교육방식, 과목수, 주당교육시간)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 독립표본 t 검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8과 같다.

성별에 따른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의 초등 전 사교육 경험유무, 교육방식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사교육(국, 영,

수) 과목수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 검정을 실시한 결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반면, 성별에 따른 초등 전 사교육 과목별(국, 영, 수) 시작연령, 주당교육시간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 검정을 실시한 결과 국어 시작연령($t = 2.23, p < .05$), 국어 주당교육시간($t = 2.07, p < .05$), 수학 주당교육시간($t = 2.15, p < .05$)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국어 시작연령의 경우 여아가 남아보다 먼저 국어 사교육을 시작한 것을 의미한다. 사교육 주당교육시간은 남아가 여아보다 국어 사교육을 더 오랜 시간 받고 있으며, 수학 또한 남아가 여아보다 더 오랜 시간 사교육을 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른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의 초등 전 사교육 경험(경험유무, 시작연령, 교육방식, 과목수, 주당교육시간)의 차이

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른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의 초등 전 사교육 경험(경험유무, 시작연령,

표 8. 성별에 따른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의 초등 전 사교육 경험(시작연령, 주당교육시간)

	성별		<i>t</i>
	남아	여아	
	<i>M(SD)</i>		
사교육 시작연령(세)			
국어	4.83(1.26)	4.68(1.22)	2.23*
영어	5.27(1.05)	5.41(1.13)	-1.25
수학	5.19(1.09)	5.10(1.09)	1.38
	<i>M(SD)</i>		
사교육 주당교육시간(분)			
국어	25.39(78.19)	20.17(37.65)	2.07*
영어	12.14(48.78)	15.53(51.84)	-1.62
수학	20.40(65.60)	15.80(33.41)	2.15*

* $p < .05$.

교육방식, 과목수, 주당교육시간)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 일원배치분산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집단 차이가 있을 경우 Scheffé의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9와 같다.

먼저 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라 초등 전 사교육 경험유무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사교육 전체($\chi^2 = 61.44, p < .001$), 국어($\chi^2 = 21.98, p < .001$), 영어($\chi^2 = 38.66, p < .001$), 수학($\chi^2 = 8.07, p < .05$)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부모의 소득수준이 월 546만원 이상인 집단의 경우 사교육 경험유무에서 사교육 전체 경험있음 81.6%, 국어 경험있음 62.2%, 영어 경험있음 26.6%, 수학 경험있음 47.0%로 세 집단 중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다. 반면, 월 182만원 미만인 집단의 경우 사교육 전체 경험있음 55.4%, 국어 경험있음 47.2%, 영어 경험있음 8.2%, 수학 경험있음

38.1%로 세 집단 중 가장 낮은 응답을 보였다. 이는 부모의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아동의 사교육 경험이 더 많은 것을 의미한다.

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른 사교육 시작연령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영어 시작연령($F = 10.41, ns$)의 경우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국어 시작연령($F = 10.41, p < .001$), 수학 시작연령($F = 8.99, p < .001$)의 경우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국어, 수학의 경우 Scheffé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사후검증 결과 월 182만원 미만인 집단의 경우 월 182~546만원 미만, 월 546만원 이상인 집단보다 국어 시작연령이 5.14세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수학의 경우도 월 182만원 미만인 집단이 월 182~546만원 미만, 월 546만원 이상인 집단보다 수학 시작연령이 5.49세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곧 부모의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국어, 수학 사교육 시작연

표 9. 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른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의 초등 전 사교육 경험(경험유무, 시작연령, 과목수, 주당교육시간)

		부모의 소득수준			
		월 182만원 미만 (저소득층)	월 182~546만원 미만 (중산층)	월 546만원 이상 (고소득층)	
		응답수(%)			χ^2
사교육 경험유무					
사교육 전체	경험있음	189(55.4)	1,143(73.4)	248(81.6)	61.44***
	경험없음	152(44.6)	414(26.6)	622(28.2)	
국어	경험있음	161(47.2)	941(60.4)	189(62.2)	21.98***
	경험없음	180(52.8)	616(39.6)	115(37.8)	
영어	경험있음	28(8.2)	266(17.1)	81(26.6)	38.66***
	경험없음	313(91.8)	1,291(82.9)	223(73.4)	
수학	경험있음	130(38.1)	721(46.3)	143(47.0)	8.07*
	경험없음	211(61.9)	836(53.7)	161(53.0)	
		<i>M(SD)</i>			<i>F</i>
사교육 시작연령(세)					
국어		5.14(1.14) ^a	4.66(1.24) ^b	4.78(1.25) ^b	10.41***
영어		5.50(1.17)	5.29(1.10)	5.38(1.10)	.585
수학		5.49(.98) ^a	5.06(1.09) ^b	5.18(1.11) ^{ab}	8.99***
사교육(국, 영, 수) 과목수		.94(1.02) ^a	1.24(1.06) ^b	1.36(1.09) ^b	14.71***
사교육 주당교육시간(분)					
국어		19.03(49.47)	24.48(69.84)	19.70(33.17)	1.51
영어		5.47(27.98) ^a	13.24(49.89) ^b	27.43(69.66) ^c	15.74***
수학		13.17(30.06)	19.09(55.08)	18.13(52.54)	1.78

주. 부모의 소득수준 기준은 보건복지부에서 조사한 2010년 최저생계비 계층조사 연구에 따라 2010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월 364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중위소득을 100으로 놓고 저소득층 50% 미만, 중산층 50~150% 미만, 고소득층 150% 이상 범위의 가구로 분류한 것임.

* $p < .05$. *** $p < .001$.

령이 빨라짐을 의미한다.

과목별(국, 영, 수) 사교육 교육방식의 경우 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반면, 사교육(국, 영, 수) 과목수의 경우($F = 14.71$, $p < .001$) 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Scheffé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월 182만원 미만인 집단은 월 182~546만원 미만, 월 546만원 이상인 집단과 차이가 있었으며 사교육(국, 영, 수) 과목수 .94개로 세 집단 중 가장 적은 과목수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의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아동이 경험하는 사교육 과목수가 적음을 의미한다.

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른 사교육 주당교육시간의 경우 국어 주당교육시간($F = 1.51$, ns), 수학 주당교육시간($F = 1.78$, ns)의 경우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영어 주당교육시간($F = 15.74$, $p < .001$)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Scheffé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른 차이로는 세 집단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집단 별 영어 주당교육시간은 월 182만원 미만인 집단이 5.47분, 월 182~546만원 미만 집단이 13.24분, 월 546만원 이상인 집단이 27.43분으로 부모의 소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영어 주당교육시간 또한 증가하였다.

모의 최종학력에 따른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의 초등 전 사교육 경험(경험유무, 시작연령, 교육방식, 과목수, 주당교육시간)의 차이

모의 최종학력에 따른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의 초등 전 사교육 경험(경험유무, 시작연령, 교육방식, 과목수, 주당교육시간)에 차이가 있

는지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 일원배치분산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집단 간 차이가 있을 경우 Scheffé의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10과 같다.

모의 최종학력에 따른 초등 전 사교육 경험 유무의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사교육 전체($\chi^2 = 8.12$, $p < .05$), 국어($\chi^2 = 22.90$, $p < .001$), 영어($\chi^2 = 16.56$, $p < .001$), 수학($\chi^2 = 20.89$, $p < .001$)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사교육 전체 경험유무의 경우 모의 최종학력이 중졸이하~고졸인 집단이 70%의 비율로 모의 최종학력 세 집단 중 가장 낮은 사교육 전체 경험있음의 비율을 나타냈으며, 영어의 경우도 모의 최종학력이 중졸이하~고졸인 집단이 14%로 영어 사교육 경험있음의 비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어, 수학의 경우 대졸~대학원졸 집단이 각각 52.4%, 38.6%로 모의 최종학력 세 집단 중 가장 낮은 사교육 경험있음의 비율을 나타냈다.

모의 최종학력에 따른 사교육 시작연령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영어 시작연령($F = .84$, ns)의 경우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국어 시작연령($F = 13.00$, $p < .001$), 수학 시작연령($F = 3.74$, $p < .05$)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국어 시작연령의 경우 Scheffé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모의 최종학력이 중졸이하~고졸인 집단과 전문대졸 집단, 중졸이하~고졸인 집단과 대졸~대학원졸 집단 간 차이를 보였으며, 모의 최종학력이 가장 낮은 중졸이하~고졸 집단이 국어 시작연령 4.92세로 세 집단 중 가장 높은 시작 연령을 보였다. 수학 시작연령의 경우 Scheffé 사후검증 결과 모의 최종학력이 중졸이하~고졸인 집단과

표 10. 모의 최종학력에 따른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의 초등 전 사교육 경험(경험유무, 시작연령, 교육방식, 과목수, 주당교육시간)

		모의 최종학력			χ^2
		중졸이하~고졸	전문대 졸	대졸~대학원졸	
		응답수(%)			
사교육 경험유무					
사교육 전체	경험있음	735(70.0)	392(76.9)	504(71.6)	8.12 [*]
	경험없음	315(30.0)	118(23.1)	200(28.4)	
국어	경험있음	642(61.1)	333(65.3)	369(52.4)	22.90 ^{***}
	경험없음	408(38.9)	177(34.7)	335(47.6)	
영어	경험있음	147(14.0)	89(17.5)	151(21.4)	16.56 ^{***}
	경험없음	903(86.0)	421(82.5)	553(78.6)	
수학	경험있음	515(49.0)	249(48.8)	272(38.6)	20.89 ^{***}
	경험없음	535(51.0)	261(51.2)	432(61.4)	
		$M(SD)$			F
사교육 시작연령(세)					
국어		4.92(1.19) ^a	4.53(1.28) ^b	4.64(1.27) ^b	13.00 ^{***}
영어		5.40(1.12)	5.38(.99)	5.25(1.13)	.84
수학		5.23(1.09) ^a	5.07(1.04) ^{ab}	5.02(1.12) ^b	3.74 [*]
		응답수(%)			χ^2
사교육 교육방식					
국어	학습지	569(89.2)	313(94.0)	346(94.0)	11.08 [*]
	학원	39(6.1)	9(2.7)	11(3.0)	
	기타	30(4.7)	11(3.3)	11(3.0)	
영어	학습지	93(63.7)	50(56.2)	72(48.3)	10.29 [*]
	학원	32(21.9)	20(22.5)	34(22.8)	
	기타	21(14.4)	19(21.3)	43(28.9)	
수학	학습지	449(87.5)	227(91.2)	244(90.0)	11.67 [*]
	학원	41(8.0)	11(4.4)	8(3.0)	
	기타	23(4.5)	11(4.4)	19(7.0)	
		$M(SD)$			F
사교육(국, 영, 수) 과목수		1.24(1.06) ^{ab}	1.31(1.05) ^a	1.12(1.07) ^b	5.15 ^{**}
사교육 주당교육시간(분)					
국어		23.70(46.74)	23.89(48.39)	22.44(62.93)	.10
영어		9.40(37.81) ^a	14.68(51.82) ^{ab}	20.21(63.82) ^b	9.77 ^{***}
수학		19.05(41.76)	20.01(58.80)	16.70(63.74)	.65

* $p < .05$. ** $p < .01$. *** $p < .001$.

대졸~대학원졸 집단 간 차이를 나타내었으며, 중졸이하~고졸인 집단이 수학 시작연령 5.23세로 세 집단 중 가장 높은 시작연령을 보였다.

모의 최종학력에 따른 사교육 교육방식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국어 교육방식($\chi^2 = 11.08, p < .05$), 영어 교육방식($\chi^2 = 10.29, p < .05$), 수학 교육방식($\chi^2 = 11.67, p < .05$)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국어 교육방식의 경우 모의 최종학력 세 집단 모두 각각 89.2%, 94.0%, 94.0%의 비율로 학습지 교육방식을 가장 선호함을 볼 수 있다. 영어 교육방식의 경우 모의 최종학력 세 집단 모두 각각 63.7%, 56.2%, 48.3%의 비율로 학습지 교육방식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졸~대학원졸 집단의 경우 학습지 다음으로 기타 교육방식이 28.9%로 그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수학 교육방식의 경우도 모의 최종학력 세 집단 모두 각각 87.5%, 91.2%, 90.0%의 비율로 학습지 교육방식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모의 최종학력에 따른 사교육(국, 영, 수) 과목수($F = 5.15, p < .01$)에서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Scheffé의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전문대 졸 집단과 대졸~대학원졸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모의 최종학력이 대졸~대학원졸 집단이 사교육(국, 영, 수) 과목수 1.12개로 세 집단 중 가장 적은 과목수를 보였다.

모의 최종학력에 따른 사교육 주당교육시간의 경우, 국어 주당교육시간($F = .10, ns$), 수학 주당교육시간($F = .65, ns$)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영어 주당교육시간

($F = 9.77, p < .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Scheffé의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중졸이하~고졸인 집단과 대졸~대학원졸 인 집단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모의 최종학력이 중졸이하~고졸인 집단의 경우 영어의 주당교육시간이 9.40분이었고, 대졸~대학원졸 집단의 경우 20.21분이었다. 이는 모의 최종학력이 더 높은 집단의 아동이 더 많은 시간 영어 사교육 경험을 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3. 초등 전 사교육 경험에 따른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의 학교적응(학습활동, 학교규칙, 교우관계, 교사관계)

초등 전 사교육 경험에 따른 초등학교 1년 아동의 학교적응은 어떠한지 알아보기 위해 부모의 소득수준을 공변인으로 통제한 공변량 분석(ANCOVA)를 실시하였으며,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을 경우 Bonferroni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11과 같다.

초등 전 사교육 경험유무에 따른 학교적응을 살펴본 결과 사교육 전체($F = .15, ns$) 및 국어 사교육 경험유무($F = 1.59, ns$), 영어 사교육 경험유무($F = 3.59, ns$), 수학 사교육 경험유무($F = .92, ns$) 모두에서 학교적응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초등 전 과목별(국, 영, 수) 사교육 시작연령에 따른 학교적응을 살펴본 결과 국어 시작연령($F = .48, ns$), 영어 시작연령($F = 1.19, ns$), 수학 시작연령($F = 1.31, ns$) 모두에서 연령별 집단 간에 학교적응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초등 전 과목별(국, 영, 수) 사교육 방식에

표 11. 초등 전 사교육 경험에 따른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의 학교적응

		학습활동		학교규칙		교우관계		교사관계		학교적응 전체	
		M (SD)	F	M (SD)	F	M (SD)	F	M (SD)	F	M (SD)	F
사교육 주당교육시간											
국어	1시간 이하	2.05 (.36)		1.42 ^a (.40)		2.09 ^a (.46)		1.36 ^a (.45)		1.73 ^a (.31)	
	1시간 초과	2.04 (.36)	1.90	1.46 ^{ab} (.45)	3.36 [*]	2.07 ^a (.44)	3.86 [*]	1.32 ^a (.42)	4.96 ^{**}	1.72 ^a (.31)	6.24 ^{**}
	-2시간 이하										
	2시간 초과	2.15 (.37)		1.57 ^b (.45)		2.28 ^b (.54)		1.56 ^b (.46)		1.89 ^b (.37)	
	-5시간 초과										
영어	1시간 이하	2.00 (.34)		1.42 (.41)		2.05 ^a (.48)		1.33 (.45)		1.70 (.31)	
	1시간 초과	2.03 (.25)	.13	1.48 (.46)	.41	2.32 ^b (.52)	5.08 ^{**}	1.36 (.51)	.09	1.80 (.36)	1.51
	-2시간 이하										
	2시간 초과	2.00 (.28)		1.42 (.43)		2.11 ^{ab} (.45)		1.34 (.47)		1.72 (.31)	
	-5시간 초과										
수학	1시간 이하	2.04 (.35)		1.42 ^a (.40)		2.08 (.46)		1.36 ^a (.46)		1.73 ^a (.31)	
	1시간 초과	2.09 (.38)	1.96	1.51 ^a (.42)	3.88 [*]	2.07 (.43)	1.91	1.32 ^a (.43)	5.53 ^{**}	1.75 ^{ab} (.31)	5.04 ^{**}
	-2시간 이하										
	2시간 초과	2.13 (.36)		1.56 ^a (.39)		2.22 (.44)		1.60 ^b (.65)		1.88 ^b (.33)	
	-5시간 초과										

* $p < .05$. ** $p < .01$.

따른 학교적응을 살펴본 결과 국어의 경우($F = 1.23$, ns), 영어의 경우($F = .19$, ns), 수학의 경우($F = .40$, ns) 모두 교육방식 집단 간에 학교적응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초등 전 사교육(국, 영, 수) 과목수에 따른 학교적응을 살펴본 결과 사교육 과목수에 따라 학교적응($F = 1.25$, ns)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초등 전 사교육 과목별(국, 영, 수) 주당교육 시간에 따른 학교적응을 살펴본 결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국어 주당교육시간의 경우 학교적응 전체($F = 6.24$, $p < .01$)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보면 1시간 이하 집단($M = 1.73$, $SD = .31$)과 2시간 초과-5시간 초과 집단($M = 1.89$, $SD =$

.37)간, 1시간 초과 집단-2시간 이하 집단($M = 1.72$, $SD = .31$)과 2시간 초과-5시간 초과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세 집단 중 학교적응 점수의 경우 2시간 초과-5시간 초과인 집단이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국어 주당교육시간에 따른 학교적응의 하위영역을 살펴보면 학교규칙($F = 3.36$, $p < .05$), 교우관계($F = 3.86$, $p < .05$), 교사관계($F = 4.96$, $p < .01$)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나 학습활동($F = 1.90$, ns)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학교규칙의 경우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보면 1시간 이하 집단($M = 1.42$, $SD = .40$)과 2시간 초과-5시간 초과 집단($M = 1.57$, $SD = .45$) 간 차이가 나타났으며, 2시간 초과 5시간 초과인 집단이 학교규칙 점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우관계의 경우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보면 1시간 이하 집단($M = 2.09$, $SD = .46$)과 2시간 초과-5시간 초과 집단($M = 2.28$, $SD = .54$) 간, 1시간 초과-2시간 이하 집단($M = 2.07$, $SD = .44$)과 2시간 초과-5시간 초과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났으며 2시간 초과-5시간 초과 집단의 교우관계 점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관계의 경우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보면 1시간 이하 집단($M = 1.36$, $SD = .45$)과 2시간 초과-5시간 초과 집단($M = 1.56$, $SD = .46$) 간, 1시간 초과-2시간 이하 집단($M = 1.32$, $SD = .42$)과 2시간 초과-5시간 초과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났으며, 2시간 초과-5시간 초과 집단의 교사관계 점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어 주당교육시간의 경우 학교적응($F = 1.51$, ns)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반면 수학 주당교육시간의 경우 학교적응($F =$

5.04 , $p < .01$)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보면 1시간 이하 집단($M = 1.73$, $SD = .31$)과 2시간 초과-5시간 초과 집단($M = 1.88$, $SD = .33$)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주당교육시간이 늘어날수록 학교적응의 점수도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수학 주당교육시간에 따른 학교적응의 하위영역을 살펴보면 학교규칙($F = 3.88$, $p < .05$), 교사관계($F = 5.53$, $p < .01$)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학습활동($F = 1.96$, ns)과 교우관계($F = 1.91$, ns)에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학교규칙의 경우 집단 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2시간 초과-5시간 초과 집단이 가장 높은 학교규칙 점수를 보였다. 교사관계의 경우 1시간 이하 집단($M = 1.36$, $SD = .46$)과 2시간 초과-5시간 초과 집단($M = 1.60$, $SD = .65$)간, 1시간 초과-2시간 이하 집단($M = 1.32$, $SD = .43$)과 2시간 초과-5시간 초과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났으며, 2시간 초과-5시간 초과 집단의 교사관계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의 초등 전 사교육 실태를 알아보고, 성별, 부모의 소득수준, 모의 최종학력에 따라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의 사교육 경험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 이와 함께 초등 전 사교육 경험에 따른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의 학교적응은 어떠한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교 1학년 아동 중 초등 전 사교육 경험이 있는 아동은 전체 아동의 71.1%로 나타났다. 과목별(국, 영, 수) 사교육 경험의 경우 국어 58%, 영어 16.6%, 수학 44.9%가 사교육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 전 사교육 경험여부는 유아의 70.0%가 사교육을 받고 있다고 보고한 선행연구 결과(민미희, 2015)와 거의 유사한 수준이다. 그러나 도현심 등(2009)과 서문희와 양미선(2013)의 연구결과에서는 사교육을 경험한 유아의 비율이 각각 86.7%와 86.2%로 보고하고 있어 본 연구결과와 다소 차이를 보인다. 과목별(국, 영, 수) 사교육 경험의 경우 유아들이 국어, 수학, 영어의 순서로 사교육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보고한 선행연구 결과(김보림, 엄정애, 2007; 이기숙 등, 2002)와 일치한다. 영어 사교육의 경우 사교육 경험있음의 비율이 16.6%로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보였는데, 이는 유아기보다 오히려 학령기 초기와 후기에 영어 사교육을 실시하는 비율이 높아진다고 보고한 선행연구 결과(도현심 등, 2009)와 맥을 같이 한다. 사교육 경험의 비율은 선행연구마다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할지라도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비추어봤을 때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의 사교육 열풍은 식지 않은 것으로 보여 진다.

초등 전 사교육 과목별(국, 영, 수) 시작연령의 경우 국어는 5세, 영어, 수학은 6세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과목별 평균 사교육 시작연령은 국어가 4.76세로 세 과목 중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어 과목이 나머지 과목에 비해 가장 빠른 사교육 시작연령을 보인 것은 어머니들이 생각하는 국어 사교육의

적정 시작연령이 4.05세라고 응답한 결과와 비슷한 수준으로 볼 수 있으며, 자녀 연령에 상관없이 국어 사교육을 가장 먼저 시작했다는 선행연구 결과(우남희 등, 2010)와도 일치한다. 또한 어머니의 과반수 이상이 국어의 경우 다른 교육의 기초가 되기에 필요하다고 인식한 선행연구 결과(안지영, 2003)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과목별(국, 영, 수) 사교육 시작연령 및 평균 사교육 시작연령을 통해 우리나라 부모들이 초등학교 입학 시기가 다가올수록 사교육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며 사교육에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초등 전 사교육 방식을 과목별(국, 영, 수)로 살펴본 결과 세 과목 모두 학습지(방문교사) 교육방식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학원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아들이 가장 많이 실시하는 학습형태로 학습지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학원 순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한 선행연구 결과(박영양, 이성희, 2004; 이기숙 등, 2002)와 일치한다. 학습지의 경우 가격이 저렴하며 방문교사가 정기적으로 가정을 방문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학습 상황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및 상담까지 병행될 수 있다는 점(양유신, 2002)에서, 부모들이 가장 손쉽게 선택할 수 있는 사교육 교육방식 유형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학습지, 학원 교육방식의 경우 유아의 흥미를 바탕으로 자연스러운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사물, 사람과 상호작용하며 직접 경험해보는 방식으로 진행되지 않고(홍은자, 김희진, 2003), 이미 만들어진 교재를 가지고 유아가 직접 필기구를 사용하여 문제를 풀어내는 방식으로 진행되기에 유아에게

있어 적합하지 않은 교육방식이라 하겠다(문주영, 2001). 많은 부모들은 접근이 용이하다는 이유로 학습지, 학원 등의 교육방식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교육방식은 아동 발달에 부적합한 교육방식인 만큼 부모는 자녀에게 사교육을 제공하기에 앞서 사교육 교육방식이 자녀에게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으며, 부모교육을 통해 아동 발달에 대한 이해를 높일 필요가 있겠다.

초등 전 사교육(국, 영, 수) 과목수의 경우 2개, 1개, 3개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사교육(국, 영, 수) 과목수는 1.20개였다. 유아의 평균 사교육 개수가 1.89개라고 보고한 선행연구 결과(민미희, 2015)와 유사한 수준이지만 평균 사교육 개수가 2-3개 사이라고 보고한 선행연구 결과(도현심 등, 2009; 안지영, 2003; 우남희 등, 2010) 보다는 적은 편이다. 이는 기존 선행연구의 경우 사교육 과목수에 포함되는 과목이 국어, 영어, 수학으로 한정짓지 않고 예체능 과목까지 포함하여 조사한 결과이기에 평균 과목수 또한 본 연구결과보다 많은 편으로 보고되었을 것으로 해석되어진다. 한편, 평균 사교육(국, 영, 수) 과목수 1.20개는 국, 영, 수 세 과목 중 최소 1과목 이상을 수강하고 있음을 의미하는데, 이는 사교육 과목 중에서도 학습관련 사교육에 대한 관심이 매우 지대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초등 전 사교육 주당교육시간은 국어, 영어, 수학 모두 1시간 이하의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으며, 평균 주당교육시간의 경우 각각 22.87분, 13.78분, 18.18분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본 연구에서 사교육 교육방식 중 학습지

(방문교사) 유형을 가장 많이 이용한다고 응답한 결과와 연결 지어 해석할 수 있는데, 학습지의 경우 지도 시간이 5-20분 정도로(김도형, 2003), 본 연구에서 나타난 과목별 평균 주당 교육시간과 유사한 수준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나타난 과목별 주당교육시간 중 많게는 2시간 초과-5시간 이하를 경험하는 경우가 있었다. 또한 평균적으로 국, 영, 수 세 과목 중 한 가지 이상을 교육받고 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초등 전 사교육 주당교육시간은 우려할만한 수준으로 볼 수 있으며, 무분별하고 과도한 사교육을 지양하기 위해 자녀교육에 대한 부모의 올바르게 확고한 교육관이 필요하다 하겠다.

둘째, 성별, 부모의 소득 수준, 모의 최종학력에 따라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의 초등 전 사교육 경험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차이로는 초등 전 사교육 경험 중 사교육 시작연령, 주당교육시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사교육 시작연령에 있어 여아가 남아보다 국어 시작연령이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교육 주당교육시간에서는 남아가 여아보다 국어와 수학 과목에서 더 오랜 시간 교육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과거에는 남아에게 더 많은 학업적인 성취를 요구(양미선 등, 2010)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오늘날 부모들의 경우 자녀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자녀에게 높은 학업적인 기대를 보이며 자녀에게 사교육을 제공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른 차이로는 초등 전 사교육 경험 중 사교육 교육방식을 제외한 초등 전 사교육 경험 모두에서 차이를 보였다.

사교육 경험유무의 경우 사교육 전체, 국어, 영어, 수학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부모의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사교육 경험도 증가하였다. 이는 가정의 월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사교육 실시여부 또한 증가한다고 보고한 선행연구 결과(도현심 등, 2009)와 일치한다. 사교육 시작연령의 경우 국어와 수학 시작연령에서 차이를 보였다. 국어, 수학 시작연령 모두 부모의 소득수준이 높은 경우 사교육 시작연령이 빠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가구의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현재 사교육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한 선행연구 결과(이정원, 2009)와 맥을 같이 한다. 사교육(국, 영, 수) 과목수의 경우 부모의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아동이 경험하는 사교육 과목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정의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유아가 경험하는 사교육의 가짓수 또한 증가한다고 보고한 선행연구 결과(김보림, 엄정애, 2007; 도현심 등, 2009; 안지영, 2003; 이기숙 등, 2002)와 일치한다. 사교육 주당교육시간에서는 영어 주당교육시간에서 차이를 보였으며, 저소득층에서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영어 주당교육시간이 증가하였다. 이는 가정의 수입이 증가할수록 사교육 주당교육시간 또한 늘어난다고 보고한 선행연구 결과(도현심 등, 2009)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소득수준이 높은 경우 사교육비 지출이 증가하였다는 선행연구 결과들(민미희, 2015; 서문희, 양미선, 2013; 성낙일, 홍성우, 2008; 이경선, 김주후, 2010)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으며, 부모의 소득수준이 사교육 비용 증가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구체적인 사교육 경험

(경험유무, 시작연령, 과목수, 주당교육시간)에 있어서도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모의 최종학력에 따른 차이로는 초등 전 사교육 경험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먼저 사교육 경험유무 중 사교육 전체, 국어, 영어, 수학 모두에서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사교육 실시 여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한 선행연구 결과(도현심 등, 2009)와는 다른 결과이다. 국어, 수학의 경우 모의 최종학력이 가장 높은 집단이 사교육 경험있음의 비율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사교육에 대한 인식이 낮고(권정운, 장영희, 2007), 부모 학력이 대학 이상일 경우에 사교육에 대한 참여가 감소한다고 보고한 선행연구 결과(이영, 2004)와 일치한다. 즉, 학력이 높은 부모의 경우 자녀의 교육을 직접 돌볼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이영, 2004). 한편, 영어의 경우 모의 최종학력이 높아질수록 영어 사교육 경험의 비율도 높아졌는데, 이는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외국어 조기교육의 실시비율이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한 선행연구 결과(김주후 등, 2011)와 일치하며,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서 영어 과목에 대한 중요성이 다른 과목에 비해 높게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사교육 시작연령에서는 국어 시작연령과 수학 시작연령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두 과목 모두 모의 최종학력이 가장 낮은 집단이 사교육 시작연령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교육에 대한 관심 역시 높아진다고

보고한 선행연구 결과(서혜경, 2003)와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사교육 교육방식에서는 국, 영, 수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모의 최종학력에 관계없이 학습지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어의 경우는 모의 최종학력이 높을수록 학습지 이용 비율은 낮아지고, 학원 및 기타 교육방식의 이용률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 경우 조기영어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고 자녀의 영어교육에 대해 많은 교육적 지원을 제공(반경하, 서현아, 2009)하기에 나타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사교육(국, 영, 수) 과목수의 경우 구체적으로 전문대 졸과 대졸~대학원졸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모의 최종학력이 전문대 졸 집단이 대졸~대학원졸 집단보다 더 많은 사교육 과목수를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문대 졸업 학력의 어머니가 대학원 졸업 이상 학력의 어머니보다 자녀에게 학습 관련 영역 사교육을 더 많이 시키며(민미희, 2015), 어머니의 학력이 전문대 졸업 이하, 대졸 집단이 대학원 졸 이상인 집단보다 사교육의 가짓수가 더 많았다고 보고한 선행연구 결과(김보림, 엄정애, 2007)와 일치한다.

사교육 주당교육시간의 경우 영어 주당교육 시간에서 차이를 보였으며, 대졸~대학원졸 집단의 영어 주당교육시간이 20.21분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조기영어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며(윤세영, 2008),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유아기 매일 영어교육을 실시해야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는 선행연구 결과(반경하, 서현아, 2009)와 맥을 같이 한다.

모의 최종학력에 따른 초등 전 사교육 경험 모두에서 차이가 나타났다는 점을 미루어봤을 때, 초등 전 사교육 경험에 있어서 어머니의 영향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어머니가 자녀 교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누구보다도 어머니의 자녀 교육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정립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셋째, 초등 전 사교육 경험에 따른 초등 학교 1학년 아동의 학교적응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 전 사교육 경험 중 오직 국어 주당교육시간과 수학 주당교육시간에 따른 학교적응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국어 주당교육시간의 경우 학교적응 전체 및 하위영역인 학교규칙, 교우관계, 교사관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수학 주당교육시간의 경우 학교적응 전체 및 그 하위영역인 학교규칙, 교사관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사교육 주당교육시간이 많을수록 학교적응 및 그 하위영역에 대한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들이 사교육을 받는 시간 동안 노출되는 교육적 과정에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아동은 사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교사와 보다 많은 상호작용을 주고받으며 접촉하게 되고, 자신에게 주어진 과제를 기한 내 완수하기 등 일종의 규칙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들은 유아가 초등 학교 입학 후 학교에서 겪게 되는 과정을 미리 경험한 것으로 여겨져 학교적응 및 그에 따른 하위영역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해석되어진다.

한편, 사교육 경험이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

쳤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수업에 대한 흥미, 수업 내용 이해, 학습 태도 등을 나타내는 학습활동 하위영역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는 유아기 부모의 사교육 실사가 초등학교에서 보다 성공적인 적응과 성취를 얻두에 둔 행위이며(김주후 등, 2011), 사교육을 시키는 가장 큰 이유로 자녀 학습에 도움을 주기 위함이라고 응답한 선행연구 결과(김보림, 엄정애, 2007)와 상반된 결과라 할 수 있다. 초등 전 사교육 경험이 학습활동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것은 선행학습 위주의 사교육 활동이 아동의 학습에 대한 흥미를 빼앗아 결국엔 학습동기를 저하시킨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초등 전 사교육 경험이 학습활동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것은 선행학습 위주의 사교육 활동이 아동의 학습에 대한 흥미를 빼앗아 결국엔 학습동기를 저하시킨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김정화와 김언주(2006)의 연구에서도 초등학생의 학교생활 중 학습활동은 학습동기와 가장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적절한 학습동기는 학습자를 능동적이게 만들고 학습시간을 더욱 지속시키며 보다 많은 학습적 효과를 가져오게 한다(Woolfolk, 1998). 또한 학습동기는 과제해결을 위해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게 하고 어려운 과제에 대해서도 포기하지 않게 한다(Schunk, 1991). 이처럼 학습활동에 영향을 주는 학습동기의 중요성을 미루어봤을 때, 자녀에게 무조건적인 사교육을 제공하는 것보다 자연스러운 학습동기를 유발하게 하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학령기에 자발적인 학습태도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학습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이에 본 연구결과는 초등학교 입학 전 경험하는 사교육이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의 학교적응 중 학습활동과는 관계가 없으며 그 외의 영역에서 매우 제한적인 도움만을 줄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사교육 경험이 학습활동의 긍정적 성과로써 연결되고, 학교적응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부모의 신념과 기대를 수정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론과 논의를 토대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초등 전 사교육 경험이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더 나아가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는 물론 중·고등학교 시기까지 살펴보아 초등 전 사교육 경험의 장기적인 효과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겠다. 둘째, 본 연구에서 초등 전 사교육 경험이 학교적응의 하위영역 중 학습활동 영역에서만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연구결과를 미루어봤을 때 보다 구체적으로 초등 전 사교육 경험이 초등학교 입학 후 학습관련 변인에 미치는 효과는 어떠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데이터’를 바탕으로 진행되었다. 데이터를 통해 초등 전 사교육 시작연령, 주당교육시간에 대한 자료는 얻을 수 있었으나 이 데이터만으로 연구대상 아동의 초등 전 사교육 총 경험기간에 대한 자료를 산출해내기는 어려웠다. 사교육 경험기간은 아동의 취학 전 사교육 노출정도를 알 수 있는 자료가 되기 때문에 아동의 취학 전 사교육 경험기간을 바탕으로 보다 다양한 사

교육 관련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겠다.

참고문헌

- 고정곤, 최태식 (2003). 유·초등 연계교육의 이론과 실제. 서울: 양서원.
- 권정운, 장영희 (2007). 어머니의 부모역할기능과 양육 스트레스 및 유아 조기 특기교육에 대한 인식과의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5(1), 87-99.
- 권혜진 (2015).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도형 (2003). 사교육시장의 내부고객 만족에 관한 연구: 유아학습지 시장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산업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보림, 엄정애 (2007). 유아 조기특기교육의 실태와 어머니 양육신념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 45(8), 13-24.
- 김소운, 최성우 (2015). 초등 고학년 자녀들의 자기주도학습을 위한 어머니의 촉진 경험 탐색: 고학력 어머니를 중심으로. 평생교육, 11(3), 67-95.
- 김수정, 곽금주 (2010). 초등일학년 학교적응의 예언 변인들 간 관련성 탐색 I. 인간발달연구, 17(4), 89-109.
- 김순기 (2006). 교사와 학부모의 사교육 인식 비교. 경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재명 (2015). 유아의 기본생활습관과 학교준비도 및 사교육 참여의 관계.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화, 김언주 (2006). 아동이 지각한 교사실패 및 학습동기와 학교생활 적응간의 관계. 한국아동교육학회, 15(2), 117-129.
- 김주후, 김경란, 유운영 (2011). 조기 교육 실시에 따른 취학 전 유아 학교준비도에 대한 부모의 신념 분석. 유아교육학논집, 15(1), 99-116.
- 김지경 (2004). 미취학 자녀의 사교육 이용여부 및 비용의 결정요인. 한국소비자학회지, 15(3), 67-86.
- 김창복, 이신영 (2013). 자녀의 초등학교 전이 및 적응에 대한 어머니들의 이야기. 어린이미디어연구, 12(3), 319-350.
- 나인영, 이 영 (2011). 취학 전 교육경험에 따른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의 학교 적응과 학업 성취. 생애학회지, 1(1), 85-102.
- 도현심, 박보경, 김수진, 조숙인 (2009). 아동의 연령, 가정의 경제사회적 수준 및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른 유아기 및 학령기 아동 대상 사교육의 실태. 한국아동학회지, 30(4), 135-154.
- 문선모 (1977). "학생의 배경적 특성과 학교적응에 관한 연구". 경상대학교 학생지도연구제4집.
- 문주영 (2001). 학부모의 유아학습지 선호도 연구.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민미희 (2015). 어린이집 이용 유아의 사교육 실태 및 영향요인 분석. 열린유아교육연구, 20(5), 117-136.
- 민병수 (1991). 학교생활적응과 자아개념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영양, 이성희 (2004). 유아의 과외참여 현황

- 에 따른 스트레스 정도 분석. 유아특수교육연구, 4(2), 175-196.
- 박찬옥 (2002). 유아기 조기교육의 경험과 초등학생의 학습태도, 학업자아개념과의 관계.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반경하, 서현아 (2009). 취학 전 자녀를 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및 성취 기대에 따른 조기영어교육 인식 및 실태연구. 인문학논총, 14(1), 121-148.
- 서문희, 양미선 (2013). 유아 사교육비 실태 및 결정요인 분석. 한국보육지원학회지, 9(3), 189-207.
- 서혜경 (2003).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어머니의 자녀교육 관심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성낙일, 홍성우 (2008). 우리나라 사교육비 결정요인 및 경감대책에 대한 실증분석. 응용경제, 10(3), 183-212.
- 신호정, 서영숙 (2007). 어머니의 유아기 자녀 학교적응기대와 부모효능감 및 자녀유능성 인식과의 관계. 한국보육지원학회지, 3(1), 71-87.
- 안지영 (2003). 유아기 자녀의 조기교육 실태와 어머니의 양육 신념, 양육 스트레스 및 성취 압력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 41(11), 95-111.
- 양미선, 권정임, 양연숙 (2010). 학령기 아동의 성별에 따른 부모의 학업성취압력과 학업효능감. 자연과학, 21, 15-32.
- 양유신 (2002). 교사 방문형 학습지의 소비자 만족에 관한 연구: 유아용 학습지를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우남희, 김영심, 이은정, 김현신 (2010). 한국 어머니들의 아동 발달에 대한 인식과 자녀 사교육의 실제. 생태유아교육연구, 9(2), 81-104.
- 우남희, 백혜정, 김현신 (2005). 조기 사교육이 유아의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분석: 유치원 원장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유아교육연구, 25(1), 5-24.
- 우남희, 현은자, 이종희 (1993). 사설학원과 가정 중심 조기교육 실태 연구. 유아교육연구, 13, 49-64.
- 윤세영 (2008). 조기영어교육에 대한 교사와 학부모의 인식 연구.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경선, 김주후 (2010). 유아의 사교육비 지출에 대한 가구특성별 분석.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7(1), 21-38.
- 이광현, 권용재 (2015). 유아 사교육비 지출 규모·실태 및 지출 요인분석. 교육정치학연구 22(3), 83-107.
- 이기숙, 장영희, 정미라, 홍용희 (2002). 가정에 서의 유아 조기·특기교육 현황 및 부모의 인식. 유아교육연구, 22(3), 153-171.
- 이명순 (2007). 유아 조기교육 관련 연구 분석을 통한 대안 탐색. 유아교육·보육복지연구, 11(4), 157-181.
- 이민경 (2007). 중산층 어머니들의 자녀교육 담론: 자녀교육 지원태도에 대한 의미 분석. 교육사회학연구, 17(3), 159-181.
- 이상필 (1990). 학교생활 적응수준에 따른 학업 성적 및 행동특성의 차이 분석.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영 (2004). 가계특성에 따른 사교육비 분포. 우천식 (편), 사교육의 효과, 수요 및 그

-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pp. 131-161).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 이정원 (2009). 유치원·보육시설 미이용 취학 전 아동의 사교육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영유아보육학*, 59, 29-55.
- 임성택, 어성민 (2013). 학부모의 사교육 동기와 부담감의 관계: 사교육 투자의 매개효과. *교육학연구*, 51(2), 63-87.
- 정우정 (2006). 초등학교 입학 아동의 학교 적응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화실 (2009). 초등학생의 모애착과 학교생활적응이 낙관성에 미치는 영향.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진영자, 김진선 (2010). 사교육 경험 및 부모의 성취압력이 자녀학습태도에 미치는 영향. *부모교육연구*, 7(2), 5-22.
- 한국교육개발원 (2003). 사교육 문제에 대한 대책: 공교육 교육력 강화를 중심으로. 사교육비 경감 방안 제5차 공청회 자료집.
- 한국교육개발원 (2010). 유아 사교육 실태 및 영향 분석. 연구보고 RR 2010-33.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5a).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제 1~5차 조사 데이터 유저 가이드*. 대한민국: 저자.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5b).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제 1~5차 조사코드북*. 대한민국: 저자.
- 홍은자, 김희진 (2003). 어머니의 성취압력과 유아의 학원·학습지 이용 및 스트레스간의 관계. *아동과 권리*, 7(1), 1-24.
- 황혜신 (2003). 조기교육에 대한 실태 및 부모의 인식. *열린교육연구*, 11(2), 69-85.
- Schunk, D. (1991). Self-efficacy and academic motivation. *Educational Psychologist*, 26, 207-231.
- Woolfolk, A. E. (1998). *Educational psychology*(7th ed.). Boston: Allyn and Bacon.

1 차원고접수 : 2016. 07. 10.

수정원고접수 : 2016. 08. 15.

최종게재결정 : 2016. 09. 02.

First Grade Elementary School Children's Early Childhood Private Education Experience and Later School Adjustment

Yun, Sojeong

Seoul Court Childcare Center

Kim, Jinwook

Department of Child Development
and Education, Myongji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early childhood private education experience of first grade elementary school students using the Korean Children & Youth Panel Survey by the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and explored the differences of early childhood private education (Korean, English, mathematics) experiences (experience yes or no, beginning age, education method, the number of subjects, weekly education hour) in later school adjustment. The participants were 2,342 first grade elementary school students who had taken part in the 1st Korean Children & Youth Panel Survey, 2010. The data was analyzed by cross tabulation analyses, *t*-tests, one-way ANOVAs, and analyses of covariance. The results showed that there was a difference only in the weekly education hour among the early childhood private education experiences from later school adjustment. Specifically in the sub-elements of school adjustment, school rule, peer relationship, and teacher relationship which were not related with academic achievement showed differences. However, learning activities did not show a difference. These results suggested that early childhood private education could partially help children to adjust well at the elementary school level. It is also necessary to change the caregivers' belief and expectations, in that early childhood private education experiences enable them to achieve positive results in academic activities and to aid their school adjustment.

Keywords: early childhood private education experience, private education practice, first graders, school adjustment